

신문의 언어 사용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이 주 행*

〈차 례〉

1. 서론
2. 신문 언어의 문제와 개선 방안
 - 2.1 문자
 - 2.2 문장 부호
 - 2.3 띄어쓰기
 - 2.4 단어
 - 2.4 문장
3. 결론

1.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종합 일간 신문의 언어 사용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대중 매체인 신문은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매체와 더불어 수용자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수용자를 즐겁게 하며, 수용자를 계도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구실을 한다. 저널리즘(Journalism)에서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다. 이것은 의미를 생성·재생산·확대 등을 하는 강력한 기제이다. 신문에 쓰인 언어는 특정하지 않은, 수많은 독자의 국어 습득과 학습, 사고 방식이나 가치 체계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 오래 전부

* 중앙대학교

터 모 신문사에서는 '신문 활용 교육(NIE)'이라는 슬로건 아래 신문 기사를 가지고 국어 교육을 하자는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종합 일간지의 기사문 작성자는 메시지 표현에 가장 적절하고, 어문 규정에 맞게 표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확성·명료성·간결성·용이성 등을 고루 갖춘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박갑수(1990), 이주행(1990, 1995, 2002), 황종인(1995), 진태하(1995) 등에서 우리 나라 신문 기사문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하여 고찰한 바가 있다. 다음의 보기 (1ㄱ)~(1ㄴ)은 2003년 3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공포한 대북 비밀 송금 특별 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 공포에 대해서 보도한 한국의 종합일간지 머릿기사의 제목이다.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북 송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공포하였다는 기사문의 제목이다. (1ㄱ)~(1ㄴ)은 그 기사의 중심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산만한 느낌을 준다. 그리고 띄어쓰기 규정에 어긋나게 띄어 쓰고, 한겨레신문의 제목인 (1ㄱ)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 종합 일간 신문의 언어는 전보다 크게 개선된 점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신문 언어의 실태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찾아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의의 있는 일이다.

(1) ㄱ. 北송금 특검법 원안 공포

盧대통령 "합의 안됐지만 제한적 조사 의견일치"

관련기업 분석회계 등 수사대상 제외 요청(중앙일보, 2003년 3월 15일 1쪽)

ㄴ. 北송금 특검법 공포

노대통령 "여야 제한적 특검 의견일치"(한겨레, 2003년 3월 15일 1쪽)

ㄷ. 北송금 특검법 공포

盧대통령 "野 수정약속" 거부권 행사안해

與野 '北인사 비공개' 등 3개항은 개정합의(한국일보, 2003년 3월 15일 1쪽)

ㄹ. 對北비밀송금 특검법 공포

盧대통령, 현대 자금조성 부분만 수사 희망

北인사 실명-北측 계좌 비공개

한나라민주 3개항 개정 합의(동아일보, 2003년 3월 15일 1쪽)

口. 對北송금 특검법 공포

與野, 수사기간 축소·北계좌 제외기로

盧대통령, 거부권 행사않고 원안 수용(조선일보, 2003년 3월 15일 1쪽)

신문 기사문은 기술 방법에 따라 뉴스 기사문·의견 기사문·피처(feature) 기사문 등 크게 셋으로 나뉜다. 의견 기사문은 해설 기사문·논설 기사문·칼럼·비평문 등으로 세분된다. 신문 기사문은 그 내용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운동 경기·국제 기사문 등으로 나뉘기도 한다. 기사문의 제목은 독자들의 주의를 사로잡고, '스토리'를 말하여 주며, 뉴스를 등급화하고, 신문을 매력 있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을 한다. 이렇듯 제목은 기사문의 여러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실을 한다.

이 연구에서는 신문 기사의 제목¹⁾에 쓰인 문자와 문장 부호의 오용 여부, 띄어쓰기 규정 준수 여부, 난해한 약어와 외국어 사용 실태, 비표준어 사용 실태, 구조상 완전한 문장과 의미에 따른 평서문·의문문·명령문·청유문·감탄문의 사용 양상·화계(speech level) 등에 대해서 계량적으로 살펴보고 개선책을 강구하여 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연구 자료로 삼은 것은 서울에서 발간되는 조선일보·동아일보·중앙일보·한국일보·한겨레 등 5개 종합 일간지의 2003년 3월 10일부터 3월 15일까지의 기사문이다.

1) 기사의 제목을 영어로는 'headline(머릿줄)', 독일어로는 'überschrift(윗글)', 프랑스어로는 'titre(제목)', 일본어로는 '見出し'이라고 한다.

2. 신문 언어의 문제와 개선 방안

2.1 문자

21세기는 문화 정체성이 중시되는 시대이다. 우리가 글을 통해 언어 문화의 정체성을 제고(提高)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의 고유 문자인 '한글'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나라의 종합 일간지의 제목에는 한글·한자(漢字)·로마자 등이 다음의 예문(2)와 같이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2) ㄱ. **오펙**, 산유량 쿼터 유지

이라크전편 생산 늘리기로(한겨레, 2003년 3월 13일 21쪽)

나. **OPEC** "이라크戰 나면 增産할 것"

"하루 200만~400만배럴 늘려 수급균형"

세계油價 배럴당 40~70센트 떨어져(조선일보, 3월 13일 B4)

다음의 <표 1>에서 보듯이 5개 종합 일간지의 기사 제목을 한글만으로 표기하는 평균비율은 55.92%이다. 5개 종합 일간지 중에서 기사 제목에 한글을 전용한 비율이 가장 높은 신문은 한겨레로 그 비율은 91.10%이며, 한글 전용 비율이 가장 낮은 신문은 조선일보로 그 비율은 37.39%이다.

5개 종합 일간지의 기사 제목에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는 평균비율은 29.33%로 한글 전용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신문 기사의 제목에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신문은 조선일보로 그 비율은 45.39%이고, 그 비율이 가장 낮은 신문은 한겨레로 그 비율은 0.00%이다. 한겨레는 제목에 한글과 한자를 전혀 혼용하지 않는다.

5개 종합 일간지의 기사 제목에 한글과 로마자를 혼용하는 평균비율은 10.18%로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는 것보다 낮은 편이다. 기사 제목에 한글과 로마자를 혼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신문은 중앙일보로 그

비율은 11.79%이며, 가장 낮은 신문은 한겨레로 그 비율은 8.71%이다. 한겨레가 기사의 제목에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지 않으면서 한글과 로마자를 혼용하는 것은 특이한 현상이다.

5개 종합 일간지 기사 제목에 한글·한자·로마자 등을 혼용하는 평균비율은 4.55%이다. 기사 제목에 한글·한자·로마자 등을 혼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신문은 조선일보(8.34%)이고, 그 비율이 가장 낮은 신문은 한겨레(0.19%)이다.

【표 1】 문자 사용의 실태

신문	면	기사 수	한글		한글+한자		한글+로마자		한글+한자+로마자	
			빈도 수	백분율	빈도 수	백분율	빈도 수	백분율	빈도 수	백분율
조선 일보	종합	147	34	23.12	91	61.90	7	4.76	15	10.20
	사회	90	30	33.33	49	54.44	7	7.77	4	4.44
	경제	185	83	44.86	61	32.97	19	10.27	22	11.89
	문화	22	19	86.36	3	13.63	0	0	0	0
	스포츠	65	39	60.00	7	10.76	18	27.69	1	1.53
	국제	48	8	16.66	37	77.08	0	0	3	6.25
	사설	18	2	11.11	13	72.22	0	0	3	16.66
	소계	575	215	37.39	261	45.39	51	8.86	48	8.34
한겨레	종합	167	157	94.01	0	0	10	5.98	0	0
	사회	77	76	98.70	0	0	1	1.29	0	0
	경제	158	138	87.34	0	0	19	12.02	1	0.63
	문화	30	29	96.66	0	0	1	3.33	0	0
	스포츠	57	45	78.94	0	0	12	21.05	0	0
	국제	44	39	88.63	0	0	5	11.36	0	0
	사설	18	18	100.00	0	0	0	0	0	0
	소계	551	502	91.10	0	0	48	9.56	1	0.19

중앙 일보	종합	129	47	36.43	66	51.16	9	6.97	7	5.42
	사회	73	44	60.27	25	34.24	2	2.73	2	2.73
	경제	174	112	64.36	26	14.94	29	16.66	7	4.02
	문화	19	13	68.42	5	26.31	1	5.26	0	0
	스포츠	73	46	63.01	8	10.95	16	21.91	3	4.10
	국제	65	19	29.23	38	58.46	5	7.69	3	4.61
	사설	18	9	50.00	6	33.33	3	16.66	0	0
	소계	551	290	52.63	174	31.57	65	11.79	22	3.99
동아 일보	종합	171	57	33.33	88	51.46	11	6.43	15	8.77
	사회	127	67	52.75	50	39.37	5	3.93	5	3.93
	경제	190	127	66.84	25	13.15	32	16.84	6	3.15
	문화	28	19	67.85	8	28.57	1	3.57	0	0
	스포츠	80	47	58.75	7	8.75	24	30.00	2	2.50
	국제	53	13	24.52	35	66.03	2	3.77	3	5.66
	사설	18	11	61.11	7	38.88	0	0	0	0
	소계	667	341	51.12	220	32.98	75	11.24	31	4.64
한국 일보	종합	137	49	35.76	68	49.63	10	7.29	10	7.29
	사회	82	44	53.65	29	35.36	4	4.87	5	6.09
	경제	156	85	54.48	45	28.84	20	12.82	6	3.84
	문화	21	16	76.19	5	23.80	0	0	0	0
	스포츠	65	37	56.92	10	15.38	15	23.07	3	4.61
	국제	54	15	27.77	32	59.25	3	5.55	4	7.40
	사설	18	16	88.88	0	0	2	11.11	0	0
	소계	533	261	48.96	189	35.45	54	10.13	29	5.44
총계	2877	1609	55.92	844	29.33	293	10.18	131	4.55	

신문의 종합·사회·경제·문화·스포츠·국제·사설²⁾ 등 7개

- 2) 이 연구에서는 한겨레신문과 동아일보가 정치면을 따로 설정하지 않고, 중앙일보는 화요일에 발간하는 신문에 한하여 정치면을 설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치면'을 종합면에 포함시켜 고찰하기로 한다.

면 중에서 '문화면'기사의 제목을 한글만으로 표기한 비율이 가장 높은 신문은 조선일보로 그 비율은 86.36%이다. '사설'의 제목에 한글을 전용한 비율이 가장 높은 신문은 한겨레로 그 비율은 100%이다. '국제면'의 제목에 한글과 한자를 혼용한 비율이 가장 높은 신문은 조선일보로 그 비율은 77.08%이다. 기사의 제목에 한글과 로마자를 가장 많이 혼용한 면은 스포츠면이다. 이것은 외국 운동 경기 단체와 전문 용어가 영어로 된 것을 그대로 차용해서 쓰기 때문이다. 스포츠면의 기사 제목에 한글과 한자를 혼용한 비율이 가장 높은 신문은 동아일보(30%)이다.

'경제면' 기사의 제목에 한글과 한자와 로마자를 가장 많이 혼용한 신문은 조선일보로 그 비율은 각각 11.89%이다. '종합면' 기사 제목에 한글과 한자와 로마자를 가장 많이 혼용한 신문은 동아일보로 그 비율은 8.77%이다. '국제면'의 기사 제목에 한글과 한자와 로마자를 가장 많이 혼용한 신문은 한국일보로 그 비율은 7.40%이다. 다른 면에 비해 경제면·종합면·국제면 등에 한글과 한자와 로마자를 많이 혼용하는 것은 외국어로 명명된 외국 기관이나 전문용어로 제목을 표현한 기사가 많기 때문이다.

되도록 많은 독자가 기사의 제목을 이해하게 하고, 우리의 언어 문화를 발전시키려면 가급적 한글을 전용하여야 한다. 외국에서 차용한 전문 용어나 외국어로 명명된 기관과 단체 이름을 기사의 제목에 사용할 경우에는 '오펙, 아이엠에프' 등과 같이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한글로 표기하고 그 원어는 기사의 본문(body)에서 처음 나올 때 '오펙(OPEC, 석유수출국기구), 아이엠에프(IMF, 국제통화기금)' 등처럼 () 속에 밝혀 적고, 되도록 한국어로 번역하여 표기한다.

2.2 문장 부호

문장 부호(文章符號)는 문장과 문장을 가르며, 문장의 구성 요소들을 서로 갈라서 독자가 글의 뜻을 알아보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쓰이는 상징 기호이다. 글을 쓰는 사람이 문장 부호의 용법을 정확히 몰라서 문

장 부호를 잘못 사용하면 독자가 그 글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다음의 보기 (3)에서 보듯이 신문 기사의 제목에 큰따옴표(" ")³⁾, 붙임표(-)⁴⁾, 줄임표(...) ⁵⁾ 등의 문장 부호가 잘못 쓰이는 경우가 있다.

(3) ㄱ. 동아시아 미래 공동체 위한 『문화상정사전』

한·중·일 3국의 문화코드를 푼다(중앙일보, 2003년 3월 13일, 26쪽)

ㄴ. 기업-회계법인 '유착'...당국선 '팔짱'(한겨레, 2003년 3월 12일, 17쪽)

(3ㄱ)에 쓰인 겹낫표(『 』)는 세로쓰기를 할 때 직접 대화를 표시하거나 남의 말을 인용할 경우에 쓰이는 따옴표의 일종이다. 이것은 큰따옴표(" ")로 바꾸어 써야 한다. (3ㄴ)의 '기업-회계법인'에 쓰인 붙임표(-)는 가운데점(·)으로, 줄임표(...)는 반점(.)으로 바꾸어 써야 한다. 이음표의 일종인 붙임표는 사전과 논문에서 합성어를 나타낼 적에, 또는 접사나 어미임을 나타낼 적에 쓰거나 외래어와 고유어 또는 한자어가 결합되는 경우에 쓰는 문장 부호이다. 가운데점은 열거된 여러 단위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 쓰는 문장 부호이다.

5개 신문의 제목에서 문장 부호를 오용한 실태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줄임표의 오용 비율이 9.14%로 가장 높고, 붙임표의 오용 비율이 2.60%로 그 다음을 차지하며, 큰따옴표의

-
- 3) '한글 맞춤법'에서는 큰따옴표를 대화, 인용, 특별 어구 따위를 나타낼 때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 4) '한글 맞춤법'에서는 붙임표를 사전, 논문 등에서 합성어를 나타낼 적이나 접사나 어미임을 나타낼 적이나 외래어와 고유어 또는 한자어가 결합되는 경우에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기] 불·구경, 손·발, 슬기·롭다, -(으)르걸
- 5) '한글 맞춤법'에서는 줄임표로 '.....'만을 인정하고 '...'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한글 맞춤법'에서는 줄임표를 할 말을 줄였을 때나 말이 없음을 나타낼 적에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기] ① "어디 나하고 한번 "하고 철수가 나섰다.
② "빨리 말해!"
"....."

오용 비율은 1.07%이다. 5개 신문 중 큰따옴표의 오용 비율이 가장 높은 신문은 중앙일보로 그 비율은 1.99%이고, 붙임표의 오용 비율이 가장 높은 신문은 동아일보로 그 비율은 6.59%이며, 줄임표의 오용 비율이 가장 높은 신문은 한겨레로 그 비율은 10.88%이다.

【표 2】 문장 부호의 오용 양상

신문	면	기사수	큰따옴표		붙임표		줄임표	
			빈도수	백분율	빈도수	백분율	빈도수	백분율
조선 일보	종합	147	2	1.36	0	0	13	8.84
	사회	90	0	0	0	0	10	11.11
	경제	185	6	3.24	0	0	27	14.59
	문화	22	0	0	0	0	2	9.09
	스포츠	65	2	3.07	0	0	11	16.92
	국제	48	1	2.08	0	0	7	14.58
	사설	18	0	0	0	0	0	0
	小計	575	11	1.91	0	0	60	10.43
한겨레	종합	167	1	0.59	6	3.59	20	11.97
	사회	77	0	0	2	2.59	4	5.19
	경제	158	0	0	3	1.89	17	10.75
	문화	30	0	0	0	0	2	6.66
	스포츠	57	0	0	4	7.01	12	21.05
	국제	44	1	2.27	1	2.27	5	11.36
	사설	18	0	0	0	0	0	0
	小計	551	2	0.36	16	2.90	60	10.88

중앙 일보	종합	129	1	0.77	5	3.87	12	9.30
	사회	73	2	2.73	2	2.73	4	5.47
	경제	174	2	1.14	0	0	14	8.04
	문화	19	3	15.78	0	0	0	0
	스포츠	73	1	1.36	0	0	6	8.21
	국제	65	2	3.07	0	0	6	9.23
	사설	18	0	0	0	0	0	0
	小計	551	11	1.99	7	1.27	42	7.62
동아 일보	종합	171	3	1.75	13	7.60	22	12.86
	사회	127	1	0.78	6	4.72	9	7.08
	경제	190	0	0	11	5.78	18	9.47
	문화	28	0	0	1	3.57	3	10.71
	스포츠	80	1	1.25	11	13.75	10	12.50
	국제	53	0	0	2	3.77	5	9.43
	사설	18	0	0	0	0	0	0
	小計	667	5	0.74	44	6.59	67	10.04
한국 일보	종합	137	1	0.72	2	1.45	13	9.48
	사회	82	0	0	0	0	3	3.65
	경제	156	0	0	0	0	9	5.76
	문화	21	0	0	0	0	1	4.76
	스포츠	65	1	1.53	4	6.15	5	7.69
	국제	54	0	0	2	3.70	3	5.55
	사설	18	0	0	0	0	0	0
	小計	533	2	0.37	8	1.50	34	6.37
총계		2,877	31	1.07	75	2.60	263	9.14

'한글 맞춤법'의 부록 '문장 부호'에는 문장 부호의 이름과 용법에 대한 규정이 기술되어 있다. 기자는 이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여 문장 부호를 정확히 사용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2.3 띄어쓰기

띄어쓰기의 목적은 단어와 단어의 경계를 표시함으로써 독자가 글의 내용을 쉽고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띄어쓰기는 독자들이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고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기능을 한다. 다음의 예문 (5)와 같이 띄어쓰기를 잘못하면 의미를 쉽게 파악하기가 어렵고 오해할 수가 있다.

- (5) ㄱ. 검찰 **조직이기주의** 벗어나야(한겨레신문, 2003년 3월 10일, 4쪽)
- ㄴ. 英 '反戰 여성장관' 클레어쇼트 "**유엔승인** 없이 **전쟁뎌** 사퇴"(조선일보, 2003년 3월 11일, A15)
- ㄷ. 약재 또 약재 ...지금 **손안쓰면** 늦는다.(동아일보, 2003년 3월 15일, A5)

(5ㄱ)의 '조직이기주의'는 '조직 이기주의'로, (5ㄴ)의 '유엔승인'은 '유엔 승인'으로, '전쟁뎌'은 '전쟁 뎌'으로, (5ㄷ)의 '손안쓰면'은 '손 안 쓰면'으로 띄어 써야 한다.

5개 신문의 기사 제목 중에서 잘못 띄어 쓴 것의 빈도수와 비율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띄어쓰기 오류의 실태

신문	면	기사수	오류의 실태	
			빈도수	백분율(%)
조선 일보	종합	147	122	82.99
	사회	90	73	81.11
	경제	185	122	65.94
	문화	22	14	63.64
	스포츠	65	39	60.00
	국제	48	42	87.50
	사설	18	7	38.88
	소계	575	419	72.86

한겨레	종합	167	144	86.22
	사회	77	63	81.81
	경제	158	110	69.62
	문화	30	14	46.66
	스포츠	57	38	66.66
	국제	44	36	81.81
	사설	18	5	27.77
	소계	551	410	74.41
중앙일보	종합	129	94	72.86
	사회	73	53	72.60
	경제	174	105	60.34
	문화	19	10	52.63
	스포츠	73	41	56.16
	국제	65	36	55.38
	사설	18	9	50.00
	소계	551	348	63.15
동아일보	종합	171	148	86.54
	사회	127	94	74.01
	경제	190	135	71.05
	문화	28	18	64.28
	스포츠	80	49	61.25
	국제	53	41	77.35
	사설	18	9	50.00
	소계	667	494	74.06
한국일보	종합	137	105	76.64
	사회	82	67	81.70
	경제	156	127	81.41
	문화	21	16	76.19
	스포츠	65	37	56.92
	국제	54	41	75.92
	사설	18	7	38.88
	소계	533	400	75.04
총계		2,877	2,071	71.98

이상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5개 일간지에서 기사의 제목을 띄어쓰기 규정⁶⁾에 어긋나게 표기한 평균비율은 71.98%로 띄어쓰기 규정에 따라 표기하지 않는 경향이 농후하다. 띄어쓰기 규정에 어긋나게 표기한 비율이 가장 높은 신문은 한국일보로 그 비율은 75.04%이다. 그 비율이 가장 낮은 신문은 중앙일보로 그 비율은 63.15%이다.

띄어쓰기의 오류 실태를 신문의 쪽별로 살펴보면 5개 신문 모두 '사설'이 띄어쓰기 오류 비율이 가장 낮은 편이다. 한겨레·중앙일보·동아일보 등은 종합면의 제목을, 조선일보는 국제면의 제목을, 한국일보는 사회면의 제목을 표기할 때 가장 많이 띄어쓰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

기자가 신문 기사문을 작성할 때 띄어쓰기 규정에 따라 바르게 띄어쓰는 것은 차량 운전자가 교통 법규를 준수하면서 운전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일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자가 어문 규정의 하나인 띄어쓰기 규정을 무시하고 기사의 제목을 표기하는 것은 그만큼 독자를 경시하는 데서 기인한다. 이와 같은 일은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한다. 기자는 자신보다 수용자인 독자의 언어 능력을 이해하고 기사문을 작성하여야 수용자가 즐겨 읽는 신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신문사에서는 어문 규정을 모두 숙지하고 어문 규정에 따라 기사문을 작성할 줄 아는 사람을 기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모든 기자는 어문 규정에 따라 기사문을 작성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신문사에서는 어문 규정에 어긋나게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는 어문 규정에 맞게 기사를 작성할 수 있도록 별도로 일정 기간 교육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오류를 범하는 기자는 기자 생활을 청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2.4 단어

정확하고 명료하며 이해하기 용이한 제목이 되게 하려면, 의미를 표

6) 북한에서는 띄어쓰기에 대하여 맞춤법과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남한에서는 맞춤법에 포함시켜 규정하고 있다. 남한에서는 '한글 맞춤법' 제2항과 제41항부터 제50항까지에서 띄어쓰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현하는 데 가장 알맞고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선택하여 제목을 달아야 한다. 그런데 신문 기사의 제목 중에는 난해한 약어와 외국어가 쓰인 것이 있다.

신문 기사의 제목에서는 둘 이상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고유명사는 본디말보다 약어를 사용한다. 약어는 일반적으로 그 구성 요소인 각 어근의 첫 음절을 가지고 만든다. 둘 이상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행정 부서명이나 행정 부서장은 각 어근의 첫 음절을 따온 뒤에 행정 단위명이나 행정 부서장의 직함을 맨 뒤에 붙여 약어를 만든다. 다만 '국인위(국가인권위원회), 보복부(←보건복지부), 고철(고속 철도)' 등과 같이 본디말의 의미를 연상하기가 어렵거나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말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약어 형성 규칙에 따라 약어를 만들지 않고 의미를 고려하여 만든다.

5개 종합 일간지의 제목에 쓰인 약어의 수효는 조선일보 71개, 한겨레 61개, 중앙일보 71개, 동아일보 66개, 한국일보 70개로 5개 일간지 중에서 약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신문은 조선일보이고, 가장 적게 사용한 신문은 한겨레이다. 제목에 잘못 만든 약어를 사용한 평균 비율은 %이다. 그 비율이 가장 높은 신문은 한국일보로 38.57%이고, 그 비율이 가장 낮은 신문은 동아일보로 그 비율은 30.31%이다.

【표 4】 잘못 만든 약어의 비율

신문사	약어의 수효	잘못 만든 약어	
		수효	비율
조선일보	71	26	36.62
한겨레	61	20	32.72
중앙일보	71	24	33.81
동아일보	66	20	30.31
한국일보	70	27	38.57
합계			

대한민국을 ‘한/韓’, 미국을 ‘미/美’, 영국을 ‘영/英’ 등으로 줄여 일컫는 것은 우리 나라의 언론계에서 관행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이것은 바른 약어라고 간주하기가 어렵다. 이것은 약어를 만드는 규칙에 어긋나고, 중학교 이상을 졸업한 한국인과 한국어를 이해하는 외국인이 이러한 약어를 처음으로 신문 기사의 제목에서 볼 경우 그것의 의미를 쉽게 파악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한투(←한국투자신탁증권), 대투(대한투자신탁증권)’ 등과 같이 셋 이상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고유명사인 경우에는 첫째 어근과 둘째 어근의 첫 음절만을 가지고 약어를 만든다. 그런데 이러한 규칙을 무시하고 신문에 따라 임의적으로 약어를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공정거래 위원장’을 동아일보와 한국일보에서는 ‘공정위장’, 조선일보와 한겨레에서는 ‘공정위원장’, 중앙일보에서는 ‘공정거래위장’이라는 약어를 사용하는 것이 그 예이다. ‘문화부(←문화관광부), 해양부(←해양수산부), 조흥은(←조흥은행), 현대중(←현대중공업), 두산중/두산중(←두산중공업), 연맹(한국여자농구연맹), 총장(←검찰총장/사무총장)’ 등은 약어 형성 규칙을 무시하고 만든 약어이다. 다만 약어를 만들 때 ‘복지부(←보건복지부), 고속철(←고속철도) 등처럼 의미를 고려하여 약어 형성 규칙을 무시하고 만들어 쓸 필요가 있다. 약어 형성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나 ‘고속철도’의 약어를 만들면 ‘보복부’, ‘고철’ 등이 되어 일반인이 ‘報復部’, ‘古鐵’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말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가와 그러한 정치가가 많이 배출된 지역·사업가·운동 선수 등의 이름을 YS(Yeong-sam), DJ(Dae-jung), JP(Jong-pil), BK(Byeong-hyeon Kim), PK(Pusan Kyeong-nam), MK(Mokpo Kwanju)’ 등과 같이 로마자로 줄여 표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주체성을 잃은 부끄러운 일이므로 시정하여야 한다. 김영삼 전 대통령·김대중 전 대통령·김종필 자유민주연합 명예총재 등은 로마자로 표기한 이름의 각 음절 첫 글자를 가지고 지칭하면서 이회창 한나라당 전 총재는 한자로 표기한 그의 이름 끝 글자인 ‘昌’을 사용하거나 노무현 대통령을 ‘노/廬’라고 약칭하는 것은 특이한 현상이다. 홀

룩한 정치가의 성명을 직접 지칭하기가 어려우면 그 사람의 아호를 사용하면 될 것이다. 아호가 없으면 '홍길동 전 대통령, 홍길동 전 국회의장' 등과 같이 성명 뒤에 그 사람의 현재와 과거의 직함을 붙여 쓰면 될 것이다.

약어를 표기하는 데 '조흥銀, 손배訴, 현대重' 등과 같이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는 것은 하얀 종이에 까만 먹물을 떨어뜨린 느낌을 준다. 이것은 모두 한글로 표기하여야 누구나 읽을 수 있고 주체성이 있는 것이 된다.

신문 기사의 제목에 이해하기 어려운 약어 외에 다음의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⁷⁾

- (6) ㄱ. 우리은행 캐칭 '역전 캐칭'(조선일보, 2003년 3월 13일 C1)
- 나. 블레어 '오 마이 갓'(한겨레, 2003년 3월 13일 8쪽)
- 다. 'Mr 쓴소리' 조순형의원, 盧 대통령에 일침(동아일보, 2003년 3월 12일 A4)
- 르. 김병현 선발 '베리 굿'(조선일보, 2003년 3월 12일 C1)
- ㅁ. "野-청와대 원원게임 ...相生 협력"(동아일보, 2003년 3월 15일 A3)

7) 다음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5개 신문 모두가 신문의 쪽 이름에 외국어를 사용하고 있다.

【표 4】 외국어로 명명된 신문의 쪽 이름

신문	쪽 이름
조선일보	오피니언/Business 경제종합/ Companies 기업/ World Economy 세계경제/Stock 주식/ Young Economy YE/ Survival/ Life/ Sports/ 느낌! 온스테이지/ 느낌! Arts
한겨레	경제 Economy/sports 스포츠/머니 & 머니/문화 culture@hani.co.kr
중앙일보	오피니언/이코너 라운지/머니/트렌드 & 이슈/스포츠 Sports/판 Culture
동아일보	오피니언/투데이/Metro 이슈와 화제/머니/JOB 일터/IT행복한 세상/ SPORTS/TV프로/YOU & ME/HEALTH
한국일보	오피니언/ 삶과 멋 LIFE & STYLE/ 오! 樂 ENTERTAINMENT/ TV마당

- 다. “**셀 코리아**는 실수 될 것” (한국일보, 2003년 3월 11일, B6)
 사. “때로는 고객에게 **NO**라 말해야 최고 서비스”(중앙일보, 2003년 3월 12일, E5)

이상의 (6ㄱ), (6ㄴ)은 스포츠면 기사 제목이고, (6ㄷ)은 국제면의 기사 제목이며, (6ㄹ)과 (6ㅁ)은 종합면의 기사 제목이고, (6ㄴ)과 (6ㅂ)은 경제면의 기사 제목이다. 문화면의 기사 제목과 사설의 제목에는 외국어가 쓰이지 않았다. 외국어의 사용 비율은 낮은 편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 ‘한국어’라는 국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를 이해하는 독자를 대상으로 발간하는 신문 기사의 제목에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이것은 한국어 문화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외국어를 모르는 독자를 무시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한국어를 이해하는 독자를 대상으로 발간하는 신문에는 외국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고유어·한자어·외래어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문 기사의 제목에 어려운 약어나 외국어를 사용해서도 안 되지만 비표준어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다음의 (7)에서 보듯이 비표준어를 사용한 경우도 있다.

- (7) ㄱ. SK계열사·은행株 **팔어? 말어?** (한국일보, 2003년 3월 13일, B5)⁸⁾
 ㄴ. 강남 ‘미어홈’ 2억대면 **가능하다구?** (한국일보, 2003년 3월 13일, B7)

(7ㄱ)의 ‘팔어’의 표준어는 ‘팔아’로, ‘말어’의 표준어는 ‘말아’이다. (7ㄴ)의 ‘가능하다구’의 표준어는 ‘가능하다고’이다. 오늘날 한국인들 중 상당수가 음성모음화 현상에 따라 어미 ‘-아’를 ‘-어’로, 어미 ‘-고’를 ‘-구’로, 조사 ‘도’를 ‘두’로 발음한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공식적인 글인 기사문에서는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5개 종합 일간지의 기사 제목 중에서 비표준어를 사용하여 제목을 붙인

8) 이 제목에 한글·한자·로마자 등을 혼용하고 비표준어를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경제 관련 기사의 제목이 딱딱한 느낌을 주는데 이 제목은 부드러운 인상을 준다.

것은 이상의 (7ㄱ)과 (7ㄴ) 두 개밖에 없다. 어떠한 경우든 뉴스 기사문의 제목에 비표준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5 문장

신문 기사 제목의 주요 기능은 무엇보다도 기사의 중심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는 데 있다. 날이 갈수록 독자들 중에는 기사의 제목만 읽고 마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종합일간지는 불특정 독자를 대상으로 발간된다. 따라서 기사의 제목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독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가급적 간결하고 명료하면서 완전한 문장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완전한 문장으로 표현된 기사의 제목의 빈도수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5개 종합일간지 기사의 제목들 중에서 완전한 문장으로 표현한 것의 평균비율은 3.61%로 불완전한 문장이나 명사구로 제목을 단 것에 비해 대단히 낮은 편이다. 기사의 제목을 완전한 문장으로 표현한 것의 비율이 가장 높은 신문은 조선일보이고 가장 낮은 신문은 중앙일보이다. 쪽별로 살펴보면 조선일보·한겨레·중앙일보 등은 '사설'의 제목이 완전한 문장으로 표현된 비율이 높는데, 동아일보와 한국일보는 '문화'의 제목이 완전한 문장으로 표현된 비율이 높은 편이다.

【표 5】 완전한 문장으로 표현된 제목

신문	쪽	기사수	빈도수	백분율(%)
조선 일보	종합	147	3	2.04
	사회	90	1	1.11
	경제	185	14	7.56
	문화	22	1	4.54
	스포츠	65	2	3.07
	국제	48	3	6.25
	사설	18	6	33.33
	소계	575	30	5.21

한겨레	종합	167	3	1.79
	사회	77	1	1.29
	경제	158	1	0.63
	문화	30	2	6.66
	스포츠	57	4	7.01
	국제	44	2	4.54
	사설	18	3	16.66
	소계	551	16	2.90
중앙 일보	종합	129	2	1.55
	사회	73	1	1.36
	경제	174	5	2.87
	문화	19	0	0
	스포츠	73	2	2.77
	국제	65	0	0
	사설	18	2	11.11
	소계	551	12	2.17
동아 일보	종합	171	2	1.16
	사회	127	1	0.78
	경제	190	8	4.21
	문화	28	3	10.71
	스포츠	80	5	6.25
	국제	53	2	3.77
	사설	18	1	5.55
	소계	667	22	3.29
한국 일보	종합	137	0	0
	사회	82	2	2.43
	경제	156	7	4.48
	문화	21	3	14.28
	스포츠	65	7	10.76
	국제	54	3	5.55
	사설	18	2	11.11
소계	533	24	4.50	
총계		2,877	104	3.61

대부분의 신문사가 조사·보조용언·주성분 등이 생략된 문장이나 국어의 어순 규칙을 무시하고 구성한 문장으로 신문 기사의 제목을 달기 때문에 독자가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 (8)尹부총리 '설익은 발언' 전임자 실패와 비슷
교육정책 혼란 부추긴다(중앙일보, 2003년 3월 11일 7쪽)

이상의 보기 (8)은 “윤 부총리의 설익은 발언이 전임 부총리와 비슷하다.”라는 문장과 “그의 설익은 발언이 교육 정책의 혼란을 부추긴다.”라는 문장으로 구성된 제목이다. “윤 부총리의 설익은 발언이 전임 부총리와 비슷하여 교육 정책의 혼란을 부추긴다.”로 재해석할 수 있다. (8)은 다음의 (9)와 같이 바꾸어 표현하는 것이 더욱 나은 제목이 될 것이다.

- (9) 윤 교육 부총리의 설익은 발언이
교육 정책의 혼란을 부추긴다

다음의 (10ㄱ) 역시 복잡하고 불명료한 느낌을 주는 제목이다. 이것은 (10ㄴ)처럼 바꾸어 쓰는 것이 낫다.

- (10) ㄱ. “金총장이 의혹인사 천거” “康법무와 인사 상의 안해”
康법무 누가 거짓말하나 金 前총장
ㄴ. 康 법무장관 金 전 검찰총장 중 누가 거짓말하나

다음의 예문 (11ㄱ)은 조사를 생략함으로써 불완전한 문장이 된 것이다. 예문 (11ㄴ)은 생략한 조사를 첨가하여 완전한 문장으로 바꾼 것이다.

- (11) ㄱ. ‘푼돈 퇴직금’ 노후 안전판 못된다(중앙일보, 2003년 3월 11일, 8쪽)
ㄴ. ‘푼돈 퇴직금’은 노후의 안전판이 못 된다.

다음의 (12ㄱ)은 보조 용언인 ‘하다’를 생략함으로써 불완전한 문장이 되었다. 이것은 (12ㄴ)이나 (12ㄷ)과 같이 바꾸어 써야 한다.

- (12) ㄱ. ‘제한적 특검제’ 약속 지켜져야(한겨레, 2003년 3월 15일 4쪽)
- ㄴ. ‘제한적 특검제’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 ㄷ. 한나라당은 ‘제한적 특검제’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불완전한 문장으로 제목을 다는 바람에 중의성을 지니거나 모호한 제목이 된 것이 있다.

- (13) ㄱ. 1급 인사 장관에 일임
 청와대, 공기업 인사 내부승진 우선(동아일보, 2003년 3월 15일, A2)
- ㄴ. 두문불출
 특검법 정국에 근황 주목
 면담사절...건강 관심은 편(한국일보, 2003년 3월 14일, A6)

(13ㄱ)은 중의성을 띤 제목이다. 독자가 (13ㄱ)을 청와대가 일급 인사인 장관에게 무언인가를 일임하였다고 해석하거나 일급 공무원 인사에 대한 권한을 장관에게 일임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13ㄴ)은 모호한 제목이다. 누가 두문불출하고 누가 특검법 정국에 누구의 근황을 주목하는지, 누가 누구와 면담하는 것을 사절하고, 누가 건강이 괜찮은지 등이 불명료하게 표현된 제목이다. 이와 같은 제목이 된 것은 불완전한 문장으로 제목을 달았기 때문이다.

신문 기사의 제목을 불완전한 문장으로 다는 것은 기자가 독자로 하여금 중요한 메시지를 빨리 정확하고 분명하게 파악하게 하는 데 신경을 별로 쓰지 않고 기자 자신의 입장에서 독자의 시선을 끄는 데만 연연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한국의 기자는 독자를 중시하지 않고 관료주의나 권위주의에 젖어 기사를 작성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미국의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처럼 지적 수준이 높은 독자를 대상으로 발간하는 신문이라면 명사구로 제목을 불

여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종합일간지는 불특정 다수의 독자를 대상으로 발간되므로 기자는 독자가 일정한 신문 기사의 제막만 보고도 그 기사의 중심 내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문장의 주성분을 활용하여 완전한 문장으로 제목을 달기 위해 힘써야 한다. 좀더 간결하게 제목을 달 경우에는 국어의 어순 규칙에 따라 문장 성분을 배열하고 조사를 생략하면 될 것이다.

5개 종합 일간지의 제목에 쓰인 완전한 문장과 조사가 생략된 문장의 사용 실태를 의미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의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서문이 76.3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기사의 제목에 평서문이 많이 쓰이는 것은 주로 사물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평서문이 객관성을 중시하는 신문 기사문에 가장 적절한 문장이기 때문이다. 신문 기사의 제목에 가장 적게 쓰인 것은 감탄문으로 그 비율은 0.16%이다. 이것은 글쓴이의 주관적인 감동을 표현하는 감탄문은 객관성을 중시하는 신문 기사문에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제목에 평서문 다음으로 많이 쓰인 것은 의문문으로 13.36%의 비율을 나타낸다. 의문문 다음으로는 명령문이 8.69%, 청유문이 1.44%의 비율을 보인다.

【표 6】 의미상문장 사용 실태

신문	쪽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총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조선 일보	종합	18	12.58	4	2.79	2	1.39	0	0.00	0	0.00	24	16.78
	사회	18	12.58	0	0.00	2	1.39	0	0.00	0	0.00	20	13.98
	경제	49	34.26	7	4.89	2	1.39	2	1.39	0	0.00	60	41.95
	문화	5	3.49	0	0.00	0	0.00	0	0.00	0	0.00	5	3.49
	스포츠	13	9.09	1	0.69	1	0.69	0	0.00	0	0.00	15	10.48
	국제	5	3.49	1	0.69	2	1.39	0	0.00	0	0.00	8	5.59
	사설	6	4.19	3	2.09	2	1.39	0	0.00	0	0.00	11	7.69
	소계	114	79.72	16	11.18	11	7.69	2	1.39	0	0.00	143	99.96
	종합	15	16.12	5	5.37	0	0.00	0	1.0	1	1.07	21	22.58
	사회	14	15.05	0	0.00	0	0.00	0	0.00	0	0.00	14	15.08

한겨레	경제	21	22.58	3	3.22	1	1.07	0	0.00	0	0.00	25	26.88
	문화	6	6.45	2	2.15	1	1.07	0	0.00	0	0.00	9	9.67
	스포츠	7	7.52	3	3.22	1	1.07	1	0.00	0	0.00	12	12.90
	국제	5	5.37	1	1.07	0	0.00	0	0.00	0	0.00	6	6.45
	사실	3	3.22	2	2.15	1	1.07	0	0.00	0	0.00	6	6.45
	소계	71	76.34	16	17.20	4	4.30	1	1.07	1	1.07	93	99.98
중앙 일보	종합	22	16.92	5	3.84	3	2.30	0	0.00	0	0.00	30	23.07
	사회	16	12.3	1	0.76	0	0.00	0	0.00	0	0.00	17	13.07
	경제	42	32.30	3	2.30	2	1.53	2	1.53	0	0.00	49	37.69
	문화	3	2.30	0	0.00	0	0.00	0	0.00	0	0.00	3	2.30
	스포츠	11	8.46	0	0.00	0	0.00	0	0.00	0	0.00	11	8.46
	국제	9	6.92	2	1.53	3	2.30	0	0.00	0	0.00	12	10.76
	사실	3	2.30	2	1.53	1	0.76	0	0.00	0	0.00	6	4.61
	소계	106	81.53	13	10.00	9	6.92	2	1.53	0	0.00	130	99.96
동아 일보	종합	19	13.47	3	2.12	2	1.41	1	0.70	0	0.00	25	17.73
	사회	17	12.05	0	0.00	0	0.00	0	0.00	0	0.00	17	12.5
	경제	30	21.27	5	3.54	12	8.51	0	0.00	0	0.00	47	33.33
	문화	4	2.83	1	0.70	0	0.00	0	0.00	0	0.00	5	3.54
	스포츠	20	14.18	2	1.41	5	3.54	0	0.00	0	0.00	27	19.14
	국제	8	5.67	1	0.70	2	1.41	1	0.70	0	0.00	12	8.51
	사실	4	2.83	4	2.83	0	0.00	0	0.00	0	0.00	8	5.67
	소계	102	72.34	16	11.34	21	14.89	2	1.41	0	0.00	141	99.97
	한국 일보	종합	8	7.01	3	2.63	1	0.87	0	0.00	0	0.00	12
사회		13	11.40	5	4.38	0	0.00	0	0.00	0	0.00	18	15.78
경제		24	21.05	6	5.26	5	4.38	2	1.75	0	0.00	37	32.45
문화		6	5.26	2	1.75	0	0.00	0	0.00	0	0.00	8	7.01
스포츠		19	16.66	1	0.87	2	1.75	0	0.00	0	0.00	22	19.29
국제		8	7.01	3	2.63	1	0.87	0	0.00	0	0.00	12	10.52
사실		3	2.63	2	1.75	0	0.00	0	0.00	0	0.00	5	4.38
소계		81	71.05	22	19.29	9	7.89	2	1.75	0	0.00	114	99.95
총계	474	76.32	83	13.36	54	8.69	9	1.44	1	0.16	621	99.97	

신문 기사의 제목에 평서문이 쓰인 비율이 가장 높은 신문은 중앙일보로 그 비율은 81.53%이고,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는 것은 한국일보로 그 비율은 71.05%이다. 중앙일보 다음으로 평서문이 쓰인 신문은 조선일보로 그 비율은 79.72%이고, 그 다음으로는 한겨레로 그 비율은 76.34%이고, 그 다음으로는 동아일보로 그 비율은 72.34%이다.

5개 종합일간지를 신문 기사의 제목에 의문문이 가장 많이 쓰인 것부터 가장 적게 쓰인 것의 순서로 열거하여 보면 한국일보 19.29%, 한겨레 17.20%, 동아일보 11.34%, 조선일보 11.18%, 중앙일보 10.00%순이다. 신문의 면별로 살펴보면 경제면에 의문문이 가장 많이 쓰인 신문은 조선일보 4.89%, 동아일보 3.54%, 한국일보 5.26%이다. 한겨레와 중앙일보는 종합면에 의문문이 가장 많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비율은 한겨레 5.37%, 중앙일보 3.84%이다.

신문 기사의 제목에 명령문이 가장 많이 쓰인 신문부터 가장 적게 쓰인 것의 순서로 열거하여 보면, 동아일보 14.89%, 한국일보 7.89%, 조선일보 7.69%, 중앙일보 6.92%, 한겨레 4.30%순이다. 동아일보의 제목에는 명령문이 의문문보다 더 많이 쓰였다. 명령문은 표현자가 상대방에게 자기의 의도대로 행동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이므로 동아일보는 다른 신문에 비해 수용자나 관련 기관에 요구하는 바가 많음을 보이는 것이다.

신문 기사의 제목에 청유문이 가장 많이 쓰인 신문은 한국일보로 그 비율은 1.75%이고, 가장 적게 쓰인 신문은 한겨레로 그 비율은 1.07%이다. 한국일보 다음으로 제목에 청유문이 쓰인 신문은 중앙일보로 그 비율은 1.53%이고, 그 다음으로는 동아일보로 1.41%이고, 그 다음으로는 조선일보 1.39%순이다. 한겨레가 신문 제목에 명령문과 청유문을 가장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한겨레가 다른 신문들에 비해 수용자나 관련 기관에 요구하는 바가 가장 적음을 보이는 것이다.

신문 기사의 제목에 감탄문이 쓰인 신문은 한겨레로 종합면에 1개가 사용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감탄문은 글쓴이의 주관적인 감

등을 표현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중시하는 신문의 뉴스기사문에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5개 종합일간지의 기사 제목에 쓰인 문장의 화계(speech level)⁹⁾ 사용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7>과 같다. 기사의 제목에 쓰인 문장에는 해라체, 해체, 하계체, 하오체, 해요체, 하세요체, 하십시오체 중에서 '하오체'를 제외한 나머지 화계가 모두 사용되고 있다. 화계 중에서 해라체가 51.36%로 가장 많이 쓰였다. 그 다음으로 화계가 가장 많이 쓰인 것에서부터 가장 적게 쓰인 것의 비율은 해체 28.34%, 하계체 8.37%, 해요체 6.44%, 하세요체 3.38%, 하십시오체 2.09%순이다. 표현자의 권위가 내포되어 있는 하오체와 하계체 중에서 하오체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는데, 하계체가 8.37%나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화계의 사용 실태

신문	쪽	해라체		해체		하계체		하오체		해요체		하세요		하십시오체		총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조선일보	종합	14	9.79	7	4.89	3	2.09	0	0.00	0	0.00	0	0.00	0	0.00	24	16.78
	사회	13	9.09	4	2.79	0	0.00	0	0.00	2	1.39	0	0.00	1	0.69	20	13.98
	경제	13	9.09	31	21.67	5	3.49	0	0.00	8	5.59	1	0.69	2	1.39	60	41.95
	문화	2	1.39	2	1.39	1	0.69	0	0.00	0	0.00	0	0.00	0	0.00	5	3.49
	스포츠	9	6.29	5	3.49	0	0.00	0	0.00	1	0.69	0	0.00	0	0.00	15	10.48
	국제	7	4.89	0	0.00	0	0.00	0	0.00	0	0.00	1	0.69	0	0.00	8	5.59
	사설	7	4.89	1	0.69	2	1.39	0	0.00	1	0.69	0	0.00	0	0.00	11	3.69
	소계	65	45.45	50	34.96	11	7.69	0	0.00	12	8.39	2	1.39	3	2.09	143	99.96

9) 이익섭(1994 : 215)에서는 청자대우법의 화계를 문말어미의 등급이라 하고 '해라체→반말체→하계체→하오체→해요체→합쇼체'로 구분하고 있다. 이익섭에서는 '해요체'를 '하오체'보다 더 존대하는 화계로 설정하고 있다. 박영순(2001 : 244)에서는 청자대우법의 화계를 의문형 종결어미에 따라 '하십니까→하세요→해요→하오→하는가→하나→해→하느냐/하니로 구분하고 있다.

348 국어교육학연구 (2003. 6)

한 겨 레	종합	12	12.90	5	5.37	4	4.30	0	0.00	0	0.00	0	0.00	0	0.00	21	22.58
	사회	4	4.30	10	10.75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14	15.05
	경제	11	11.82	11	11.82	0	0.00	0	0.00	1	1.07	1	1.07	1	1.07	25	26.88
	문화	5	5.37	1	1.07	0	0.00	0	0.00	3	3.22	0	0.00	0	0.00	9	9.67
	스포츠	8	8.60	1	1.07	1	1.07	0	0.00	1	1.07	1	1.07	0	0.00	12	12.90
	국제	4	4.30	1	1.07	1	1.07	0	0.00	0	0.00	0	0.00	0	0.00	6	6.45
	사실	5	5.37	0	0.00	1	1.07	0	0.00	0	0.00	0	0.00	0	0.00	6	6.45
	소계	49	52.68	29	31.18	7	7.52	0	0.00	5	5.37	2	2.15	1	1.07	93	99.98
중 양 일 보	종합	15	11.53	10	7.69	5	3.84	0	0.00	0	0.00	0	0.00	0	0.00	30	23.07
	사회	10	7.69	3	2.30	2	1.53	0	0.00	2	1.53	0	0.00	0	0.00	17	13.07
	경제	22	16.92	18	13.84	5	3.84	0	0.00	2	1.53	1	0.76	1	0.76	49	37.69
	문화	2	1.53	1	0.76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3	2.30
	스포츠	4	3.07	6	4.61	0	0.00	0	0.00	1	0.76	0	0.00	0	0.00	11	8.46
	국제	7	5.38	5	3.84	2	1.53	0	0.00	0	0.00	0	0.00	0	0.00	14	10.76
	사실	4	3.07	0	0.00	2	1.53	0	0.00	0	0.00	0	0.00	0	0.00	6	4.61
	소계	64	49.23	43	33.07	16	12.30	0	0.00	5	3.84	1	0.76	1	0.76	130	99.96
동 아 일 보	종합	15	10.63	7	4.96	1	0.70	0	0.00	1	0.70	1	0.70	0	0.00	25	17.73
	사회	10	7.09	6	4.25	0	0.00	0	0.00	1	0.70	0	0.00	0	0.00	17	12.05
	경제	22	15.60	7	4.96	3	2.12	0	0.00	2	1.41	10	7.09	3	2.12	47	33.33
	문화	5	3.54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5	3.54
	스포츠	12	8.51	5	3.54	0	0.00	0	0.00	7	4.96	2	1.41	1	0.70	27	19.14
	국제	7	4.96	3	2.12	2	1.41	0	0.00	0	0.00	0	0.00	0	0.00	12	8.51
	사실	5	3.54	0	0.00	3	2.12	0	0.00	0	0.00	0	0.00	0	0.00	8	5.67
	소계	76	53.90	28	19.85	9	6.38	0	0.00	11	7.80	13	9.21	4	2.83	141	99.97
한 국 일 보	종합	6	5.26	4	3.50	1	0.87	0	0.00	0	0.00	0	0.00	1	0.87	12	10.52
	사회	8	7.01	4	3.50	1	0.87	0	0.00	2	1.75	1	0.87	2	1.75	18	15.78
	경제	19	16.66	8	7.01	4	3.50	0	0.00	3	2.63	2	1.75	1	0.87	37	32.45
	문화	2	1.75	4	3.50	0	0.00	0	0.00	2	1.75	0	0.00	0	0.00	8	7.01
	스포츠	19	16.66	3	2.63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22	19.29
	국제	6	5.26	3	2.63	3	2.63	0	0.00	0	0.00	0	0.00	0	0.00	12	10.52
	사실	5	4.38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5	4.38
	소계	65	57.01	26	22.80	9	7.89	0	0.00	7	6.14	3	2.63	4	3.50	114	99.95
총계	319	51.36	176	28.34	52	8.37	0	0.00	40	6.44	21	3.38	13	2.09	621	99.98	

평서문의 경우에는 여러 화계 중에서도 해라체와 해체가 많이 쓰였는데, 의문문에는 하계체가 가장 많이 쓰였다. 일반 독자는 신문 기사문에 쓰이는 해라체는 화계가 중화된 것이어서 독자를 낮추어 대우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데, 해체와 하계체는 화계가 중화된 것으로 인식하지 않아 해체나 하계체로 제목을 붙인 것을 보면 불쾌하게 여길 수 있다. 따라서 기사의 제목에 [-존대]의 의미자질을 지닌 하계체나 해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결론

지금까지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5개 종합일간지인 조선일보·한겨레·중앙일보·동아일보·한국일보에 쓰인 언어의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여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5개 종합 일간지의 기사 제목에 한글을 전용하는 평균비율은 55.92%이다. 기사 제목에 한글을 전용한 비율이 가장 높은 신문은 한겨레(91.10%)이며, 그 비율이 가장 낮은 신문은 조선일보(37.39%)이다. 기사 제목에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는 평균비율은 29.33%로 한글 전용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신문 기사의 제목에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신문은 조선일보(45.39%)이고, 그 비율이 가장 낮은 신문은 한겨레(0.00%)이다. 한겨레는 기사의 제목에 한글과 한자를 전혀 혼용하지 않는다. 기사 제목에 한글과 로마자를 혼용하는 평균비율은 10.18%로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는 것보다 낮은 편이다. 기사 제목에 한글과 로마자를 혼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신문은 중앙일보(11.79%)이며, 가장 낮은 신문은 한겨레(8.71%)이다. 한겨레가 기사의 제목에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지 않으면서 한글과 로마자를 혼용하는 것은 특이한 현상이다. 기사 제목에 한글·한자·로마자 등을 혼용하는 평균비율은 4.55%이다. 기사 제목에 한글·한자·로마

자 등을 혼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신문은 조선일보(8.34%)이고, 그 비율이 가장 낮은 신문은 한겨레(0.19%)이다.

되도록 많은 독자가 기사의 제목을 이해하게 하고, 우리의 언어 문화를 발전시키려면 가급적 한글을 전용하여야 한다. 외국에서 차용한 전문 용어나 외국어로 명명된 기관과 단체 이름을 기사의 제목에 사용할 경우에는 '오펙, 아이엠에프' 등과 같이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한글로 표기하고 그 원어는 기사의 본문(body)에서 처음 나올 때 '오펙(OPEC, 석유수출국기구), 아이엠에프(IMF, 국제통화기구)' 등처럼 () 속에 밝혀 적고, 되도록 한국어로 번역하여 표기한다.

(2) 신문 기사의 제목에 오용한 문장 부호는 줄임표·붙임표·줄임표 등이다. 가장 많이 오용한 문장 부호는 줄임표이고, 가장 적게 오용한 것은 큰따옴표이다. 5개 신문 중 큰따옴표의 오용 비율이 가장 높은 신문은 중앙일보이고, 붙임표의 오용 비율이 가장 높은 신문은 동아일보이며, 줄임표의 오용 비율이 가장 높은 신문은 한겨레이다. 기자는 한글맞춤법 부록에 규정되어 있는 문장 부호의 갈래와 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문장 부호를 바르게 사용하여야 한다.

(3) 5개 일간지에서 기사의 제목을 띄어쓰기 규정¹⁰⁾에 어긋나게 표기한 평균비율은 71.98%나 된다. 띄어쓰기 규정에 어긋나게 표기한 비율이 가장 높은 신문은 한국일보(75.04%)이고, 그 비율이 가장 낮은 신문은 중앙일보(63.15%)이다. 띄어쓰기의 오류 실태를 신문의 쪽별로 살펴보면 5개 신문 모두 '사실'이 띄어쓰기 오류 비율이 가장 낮은 편이다. 기자들은 띄어쓰기 규정을 숙지하고 바르게 띄어 쓰기 위해 힘써야 한다.

(4) 신문 기사의 제목들 중에서 완전한 문장으로 표현한 것의 평균 비율은 3.61%로 불완전한 문장이나 명사구로 제목을 단 것에 비해 대단히 낮은 편이다. 기사의 제목을 완전한 문장으로 표현한 것의 비율이

10) 북한에서는 띄어쓰기에 대하여 맞춤법과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남한에서는 맞춤법에 포함시켜 규정하고 있다. 남한에서는 '한글 맞춤법' 제2항과 제41항부터 제50항까지에서 띄어쓰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가장 높은 신문은 조선일보이고 가장 낮은 신문은 중앙일보이다. 우리나라의 일간지는 불특정 독자를 대상으로 발간되므로 초등학교를 졸업한 독자도 신문 기사 제목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하려면 가급적 완전한 문장으로 제목을 달아야 한다.

(5) 신문 기사 제목들 중에는 평서문·의문문·명령문·청유문·감탄문 등으로 붙여진 것이 있다. 이러한 문장들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인 것은 평서문이다. 신문 기사의 제목에 평서문이 쓰인 비율이 가장 높은 신문은 중앙일보(81.53%)이고,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는 것은 한국일보(71.05%)이다. 기사의 제목에 평서문이 많이 쓰이는 것은 주로 사물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평서문이 객관성을 중시하는 신문 기사문에 가장 적절한 문장이기 때문이다.

(6) 신문 기사의 제목에 쓰인 문장에는 해라체, 해체, 하계체, 하오체, 해요체, 하세요체, 하십시오체 중에서 '하오체'를 제외한 나머지 화계가 모두 사용되고 있다. 화계 중에서 '해라체'가 51.36%로 가장 많이 쓰인다. 평서문의 경우에는 여러 화계 중에서도 '해라체'와 '해체'가 많이 쓰이는데, 의문문에는 '하계체'가 가장 많이 쓰인다. 일반 독자는 신문 기사문에 쓰이는 '해라체'는 화계가 중화된 것이어서 독자를 낮추어 대우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데, 해체와 하계체는 화계가 중화된 것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해체'나 '하계체'로 제목을 붙인 것을 보면 불쾌하게 여길 수 있다. 따라서 기사의 제목에 [-존대]의 의미자질을 지닌 '하계체'나 '해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신문사에서는 고급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지닌 사람을 기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문 규정을 모르거나 기사문 작성 능력이 결여된 기자를 대상으로 국어 어문 규정과 기사문 작성법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사문을 기자의 업무 수행 능력의 중요한 평가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모든 기자는 기사문을 자신의 언어 능력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서는 안 되고, 독자의 언어 능력을 고려하여 기사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기자는 기사를 한글로 한국의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하며, 되도록 간결하

고 완전한 문장으로 기사문을 작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기자는 냉철한 비판자로 늘 자신이 작성한 기사문을 검토하고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기자로 근무를 하여야 한다.

문제가 있는 신문 기사에 대한 책임은 기자뿐만 아니라 독자에게도 있다. 대부분의 독자는 신문 기사문에서 오류를 발견하면 해당 신문사나 해당 작성자에게 지적하여 주지 않고 간과하여 버리는 경향이 농후하다. 신문은 공기(公器)이므로 더욱 질이 높은 신문이 발간되도록 하려면 독자는 기사문을 적극적으로 비판·수용하는 독자가 되어야 한다. 전에는 뉴스 기사문의 경우에는 작성자의 성명을 명기하지 않았는데 요사이에는 매 기사마다 작성자의 성명과 그의 이메일 주소를 명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독자는 신문 기사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해당 기자에게 이메일로 그 문제를 지적하여 주거나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주는 적극적인 독자가 되어야 한다. 기자의 글쓰기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에서 글쓰기 교육을 철저히 하지 않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인터넷으로 통신을 하면서 언어 규범을 무시하고 글을 쓰며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사용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각급 학교에서는 공적인 글을 쓸 적에는 반드시 어문 규정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여러 어문 규정을 철저히 교육하고, 수용자를 배려하여 글을 쓰는 태도를 지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김용진(2003), 신문의 권력화 : 사설 제목의 변천을 중심으로. 2003년도 한국사회언어학회 봄 정기 학술 발표대회 논문집. pp.8~15.
- 박갑수·이주행·이석주(1990), 신문 기사의 문체. 한국언론연구원.
- 박영순(2001), 한국어의 사회언어학. 한국문화사. p.244.
- 이석주 외 5인(2002), 대중 매체와 언어. 역락출판사. pp.7~36.

- 이익섭(1994), *사회언어학*. 민음사. p.215
- 이주행(1991), 남북한 신문 문체의 비교 연구. 한국언론연구원.
- 이주행(1995), 신문 기사의 문장. *새국어생활* 제5권 제4호(1995. 가을호). 국립국어연구원. pp.25~43
- 이주행 외(1996), 신문 방송 기사 문장. 한국언론연구원.
- 이주행(2001), *한국어 문법의 이해(개정판)*. 월인출판사.
- 이주행(2002), 신문의 언어. 대중 매체와 언어. 역락출판사. pp.37~100.
- 진태하(1995), 신문의 기사와 한자 문제. *새국어생활* 제5권 제4호(1995. 가을호). 국립국어연구원. pp.44~64.
- 황종인(1995), 한국 신문 기사의 제목. *새국어생활* 제5권 제4호(1995. 가을호). 국립국어연구원. pp.3~24.
- Dominik, Joseph(1994), *The Dynamics of Mass Communication*. Updated 1994 Edition. New Youk : McGraw-Hill. pp.25 ~30.

〈초록〉

신문의 언어 사용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이 주 행

이 연구의 목적은 5개 종합일간지 — 조선일보 · 한겨레 · 중앙일보 · 동아일보 · 한국일보 등 — 에 쓰인 문자 · 문장 부호 · 띄어쓰기 · 어휘 · 문장 등에 대해서 계량적으로 살펴 문제점을 찾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신문 기사의 제목에 쓰인 문자와 문장 부호의 오용 여부, 띄어쓰기 규정 준수 여부, 난해한 약어와 외국어 사용 실태, 비표준어 사용 실태, 구조상 완전한 문장과 의미에 따른 평서문 · 의문문 · 명령문 · 청유문 · 감탄문의 사용 양상 · 화계(speech level) 등에 대해서 계량적으로 살펴보고 개선책을 강구하여 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연구 자료로 삼은 것은 서울에서 발간되는 조선일보 · 동아일보 · 중앙일보 · 한국일보 · 한겨레 등 5개 종합 일간지의 2003년 3월 10일부터 3월 15일까지의 기사문이다.

5개 종합 일간지의 기사 제목에 한글을 전용하는 평균비율은 55.92%이고, 한글과 한자를 혼용한 평균비율은 29.33%이며, 한글과 로마자를 혼용한 평균비율은 10.18%이고, 한글 · 한자 · 로마자 등을 혼용하는 평균비율은 4.55%이다. 되도록 많은 독자가 기사의 제목을 이해하게 하고, 우리의 언어 문화를 발전시키려면 가급적 한글을 전용하여야 한다.

신문 기사의 제목에 오용한 문장 부호는 줄임표 · 붙임표 · 줄임표 등이다. 가장 많이 오용한 문장 부호는 줄임표이고, 가장 적게 오용한 것은 큰따옴표이다. 기사는 한글맞춤법 부록에 규정되어 있는 문장 부호의 갈래와 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문장 부호를 바르게 사용하여야 한다.

신문 기사의 제목을 띄어쓰기 규정에 어긋나게 표기한 평균비율은 71.98%이다. 기자들은 띄어쓰기 규정을 숙지하고 바르게 띄어 쓰기 위해 힘써야 한다.

신문 기사의 제목들 중에서 완전한 문장으로 표현한 것의 평균비율은 3.61%로 불완전한 문장이나 명사구로 제목을 단 것에 비해 대단히 낮은 편이다. 우리 나라의 일간지는 불특정 독자를 대상으로 발행되는 것이므로 초등학교를 졸업한 독자도 신문 기사 제목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하려면 가급적 완전한 문장으로 제목을 달아야 한다.

신문 기사 제목들 중에는 평서문·의문문·명령문·청유문·감탄문 등으로 붙여진 것이 있다. 이러한 문장들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인 것은 평서문이다. 기사의 제목에 평서문이 많이 쓰이는 것은 주로 사물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평서문이 객관성을 중시하는 신문 기사문에 가장 적절한 문장이기 때문이다.

신문 기사의 제목에 쓰인 문장에는 해라체, 해체, 하계체, 하오체, 해요체, 하세요체, 하십시오체 중에서 '하오체'를 제외한 나머지 화계가 모두 사용되고 있다. 화계 중에서 '해라체'가 51.36%로 가장 많이 쓰인다. 평서문의 경우에는 여러 화계 중에서도 '해라체'와 '해체'가 많이 쓰이는데, 의문문에는 '하계체'가 가장 많이 쓰인다. 일반 독자는 신문 기사문에 쓰이는 '해라체'는 화계가 중화된 것이어서 독자를 낮추어 대우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데, '해체'와 '하계체'는 화계가 중화된 것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해체'나 '하계체'로 제목을 붙인 것을 보면 불쾌하게 여길 수 있다. 따라서 기사의 제목에 [-존대]의 의미자질을 지닌 '하계체'나 '해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신문사에서는 고급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지닌 사람을 기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문 규정을 모르거나 기사문 작성 능력이 결여된 기자를 대상으로 국어 어문 규정과 기사문 작성법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사문을 기자의 업무 수행 능력의 중요한 평가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모든 기자는 냉철한 비판자로 늘 자신이 작성한 기사문을 검토하고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기자로 근무를 하여야한다.

신문은 공기(公器)이므로 더욱 질이 높은 신문이 발간되도록 하려면 독자는 신문 기사문을 적극적으로 비판·수용하는 독자가 되어야 한다. 독자는 신문 기사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해당 기자에게 이메일로 그 문제를 지적하여 주거나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주는 적극적인 독자가 되어야 한다.

기자의 글쓰기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에서 글쓰기 교육을 철저히 하지 않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각급 학교에서는 공적인 글을 어문 규정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여러 어문 규정을 철저히 교육하고, 수용자를 배려하여 글을 쓰는 태도를 지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핵심어】 신문, 언어, 띄어쓰기, 약어, 외국어, 비표준어, 문장, 화제

<Abstract>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and the Improvement Plan of the Language used in Korean Newspapers.

Lee, Ju-haeng

This article aims to consider the actual conditions and the improvement plan of the language used in Korean Newspapers.

Titles of Korean newspaper account was expressed so that only reader who have high-quality language ability may understand. There are using together with Hangul, Chinese character, and Roman alphabet etc. without using exclusively Hangul in title of newspaper account. Double quotation marker, hyphen, and ellipsis marker etc. are not used correctly in title of newspaper account. There are a lot of titles of newspaper account that do not write correctly words separating by spaces according to spacing words regulation. Unintelligible abbreviated words and foreign words are abused in title of newspaper account, and non-standard words are used. There are a lot of that weigh title of newspaper account with incomplete sentences that disregard word order rules of Korean language. Declarative sentence, interrogative sentence, imperative sentence, inducing sentence, and exclamatory sentence are used in report's titles. Declarative sentences among them are used most in report's titles. Haera

style among speech levels is used most in title of newspaper account. Hae style that expresses [- respect] or Hage style that speaker's authority is contained are used in ones.

Newspaper publishing company must employ a person who have language ability of high-quality level as a reporter. Reporters that do not know Korean regulation or reporters who report creation ability is lacked should educate thoroughly about them.

【key words】 newspaper, language, spacing words, abbreviated words, foreign words, non-standard words, sentence, speech level

부록 : 신문 기사의 제목에 쓰인 略語

신 문 약 어		조선	한겨레	중앙	동아	한국
		한/韓(韓國)	3	2	4	3
한국(大韓民國)	5	2	5	4	5	
미/美(美國)	29	35	28	32	23	
영/英(英國)	6	3	3	4	3	
불/佛/프(佛蘭西, 프랑스)	3	2(프)	5	3	1	
獨(獨逸)	1		1	1	1	
중/中(中國)	6	6	6	3	5	
일/日(日本)	4	5	7	8	4	
伊(伊太利)			1	1		
러(러시아)	2	1	3	2		
加(캐나다, 加拿大)					1	
북/北(북한)	11	11	12	23	10	
PK(Pusan Kyeongnam)				1		
인명	YS(Yeong Sam, 김영삼)		1	1	1	
DJ(Dae Jung, 김대중)	2	2	4	6	1	
JP(Jong Pil, 김종필)	1	1	1		1	
昌(李會昌)	1				2	
노/盧(노무현)	5	4	13	12	15	
BK(Byeon-hyeon Kim, 김병현)		1		1	1	
행정	교육부(교육인적자원부)	1	1	1	1	1
정통부(정보통신부)	1	2	1	1	1	
문화부(문화관광부)	1	1	1	1	1	
재경부(재정경제부)	1	3	1	2	1	
건교부(건설교통부)	2					
복지부(보건복지부)			1		1	
해양부(해양수산부)				1		
행자부(행정자치부)				1	1	
산자부(산업자원부)					1	

행정	靑(靑瓦臺)					4
	국정원(국가정보원)				3	
	공정위/공정촉	3	3		1	1
	공정위장(공정거래위원장)		1		1	1
	공정위원장	1	2	1		1
	공정거래위장			1		
	금감원(금융감독원)	1		2	1	
	금감위(금융감독위원회)		1	1		
	금감위장	2	2	1	5	2
	금감위원장	1		1		1
	인권위/인권촉(국가인권위원회)	3			2	1
	인사촉/人事촉	2			1	1
	부패방지촉(부패방지위원회)	1				
사법	憲裁(헌법재판소)	1				
	檢(檢事)			1		
	檢(검찰)					3
	특검/特檢	1				
	총장(검찰총장)	1	3	3		1
	서울지검(서울지방검찰청)					1

		신 문				
		조선	한겨레	중앙	동아	한국
은행	국민은/국민銀(국민은행)			1	1	2
	한은/韓銀(한국은행)	4	1			1
	조흥(조흥은행)		1			
	조흥銀					1
	하나銀(하나은행)			1	1	
	산은/産銀(산업은행)		1	1	1	
	기업銀(기업은행)			1		
	우리銀(우리은행)	1		1		2
	외환銀(외환은행)			1		
	국민銀(국민은행)					2

증권/ 보험	損保社(손해보험사)	1				
	증권위(증권 선물 위원회)	1	2	1		1
	증권위(증권거래위원회)			1		
	한투(한국투자신탁증권)	1		2		2
	대투(대한투자신탁증권)	1		1		
	MMF(Money Market Fund)	2	2			
	손해보험協	1				
	외평채(외국환평형기금채권)	1			3	1
운동 경기	AS(assist)/ 도움	1	도움		1	
	ML(major league)		2	1		
	R(round, 회)			1		1
	V(victory)			1		
	vs(versus)				2	1
	AFC(Asian Football Confederation)	2	2	3		3
	FIFA(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 Football Association)					1
	MVP(most valuable player)	1			2	2
	PGA(Professional Golfers' Association)		1		1	
	LPGA(Ladies Professional Golf Association)	2	3	2	2	2
	PK(penalty kick)			3		
	PO(play-off)	1		1	1	2
	IOC(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2			
	WKBL(한국여자프로농구Woman's Korean Basketball League)				1	
	연맹(한국여자농구연맹)		1			
배구협/배구協(대한배구협회)		1				

정당	한나라(한나라당)	6	13	7	16	4
	민주(민주당)	1			1	
	자민련(자유민주연합)					1
	여/與(여당)	1	1	6	1	2
	야/野(야당)	3	1	8	4	3
	총장(사무총장)	2	1	4	3	2
기타	AS(after service)	1				
	TV(television)	3	1	1		2
	CPU(central processing unit, 중앙처리장치)			1	1	
	PC(personal computer)	2	1			
	OPEC(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오펙	1	오펙		1	

신문 약어		조선		한겨레		중앙		동아		한국	
		빈도수	백분율	빈도수	백분율	빈도수	백분율	빈도수	백분율	빈도수	백분율
기 타	손배(손해배상)	1		1		1		1		1	
	손배소/손배訴	1				1		2			
	고속철/고속鐵	2		3		1		2		1	
	변협(대한변호사협회)	1		2		1		1			
	민변(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1		1	
	言(言論)										1
	權(權力)										1
	政協(全國人民政治協商會議)					1					2
	전인대(全國人民代表會議)			1							
	현대車(현대자동차)					1					
	현중(현대중공업)					1					
	현대重(현대중공업)							1		1	
	두산중/두산重	3		1		3		5		3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소)			1							
	카드債(카드사 발행한 채권)					1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2		5		3				1		

기 타	안보리國(안보보장이사회 이사국)				1					
	토공(한국토지공사)		1							
	健保(건강보험)	1								
	건보료(건강보험료)	1								
	주총/株總(주주총회)	4								
	중기/中企(중소기업)	1	1				1			
	연기금(국민연금기금)				1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	2			1	2		1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1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1							
	FTA(Free-Trade Agreement)	1								1
	CEO(chie-fexecutive officer)	2	1							2
	IT(information technology)	1	1		3	3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1	1				
	CP(commercial paper)				1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2	2		1	1				3
	M&A(merger and acquisition)				1	1				
	PVC(polyvinyl chloride)					1				1
	NSC(National Security Council)	1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1	1		2					
	WTO(World Trade Organization)		2		1					
	KGB(Komitet Gosudarstvennoye Bezopastnosti)							1		
	NYT(New York Times)	1	1							
	WT(Washington Times)							1		1
	WT(Washington Times)							1		
합계	170	295	150	27.2	187	33.93	198	29.68	159	29.83